



SHEEM FELLOWSHIP



과거에는 창고였던 장소가



새롭게 단장한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4 - 14 WINDOWS

4-14 windows는 10/40 windows를 주창했던 선교학자 루이스 부쉬가 새롭게 이야기 하기 시작한 선교적 개념입니다. 지역적 선교에서 세대간의 선교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면서 가장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가장 집중되지 못하는 연령층인 4살부터 14살까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희 쉽공동체는 일찍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잘 섬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한국 방문때 신수동교회 김영수목사님과 예수소망교회 성

도님들 그리고 여러 후원자들의 손길로 유치원 장소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허름한 창고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니 어린 아이들에게 해로운 환경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깨끗한 장소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소를 새로 단장하는데에는 성결대학교 봉사팀의 많은 수고와 땀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4-14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Holy holiday Camp는 성결대학

교 봉사팀과 남아공 백인 교회가 함께 진행하게 되어서 기독교인의 연합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올 6월 부터는 유치원을 매주 2회에서 5회로 연장할 수 있어서 아이들을 더욱더 성경적 이념으로 교육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섬기고 계시는 하늘 교회와 청주침례교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더 많은 교회와 후원자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성결대 봉사단 유치원 공사



2011 Holy holiday 성경 캠프



물고기 두마리 유치원

꿈의 리그



성결대 인턴쉽으로 온 김지훈 청년은 지역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축구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조별로 리그 경기를 가지고 있으며 매주 우승팀은 월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쉽(SHEEM)리그를 통하여서 청소년부터 어린이들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발견하며 신체적 건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또한 들을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꿈의 영상



성결대 인턴쉽으로 온 이만현 전도사는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실을 OPEN 하였습니다.

미디어 교실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영화 감독이나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만들어 주며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날 드리는 PRASIE & PRAYER MEETING에서 미디어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WORSHIP TEAM



SHEEM FELLOWSHIP
WORSHIP TEAM MEMBERS

P&P (Praise and Prayer Meeting)은 저희 섬공동체의 핵심 사역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몬디움 지역을 바꾸시길 소망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복음이 필요한 땅에서 있기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시몬디움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열정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터는 마약과 술에 찌들어 살던 저스틴이라는 친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심히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